



동강대학 '철쭉 웅단' 활짝 봄비가 내린 26일 광주시 북구 동강대학 교정 곳곳에 붉은 웅단을 깔아놓은 듯 만개한 철쭉이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상저온·영농비 폭등·일손 부족·구제역 ...

農心 까맣게 탄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다. 6·2 지방선거와 희망근로에 따른 인력난, 유류대와 농사 자재비 등의 인상,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저온 등 이상기온까지 겹쳐 농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여기에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쌀값에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불안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가 26일 파악한 면세유류 가격 동향에 따르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경유는 경우 4월 중순 평균가격이 1ℓ 당 830원으로, 지난해 3월 평균가격(680원)에 비해 22%(150원) 올랐다. 휘발유도 820원으로 지난해 3월(650원)에 비해 26.2%(170원), 실내 등유는 83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8.

6%(130원)나 급등했다. 김재균(51·무안군 무안읍)씨는 "2300평의 시설하우스에서 국화를 재배하는데, 일조량 부족과 이상 저온으로 평년보다 개화가 15일이나 늦어져 난방비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나마 이상 저온 등으로 병충해까지 번져 상품성도 떨어지는데 다음달 출하 시기가 지체될 경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울먹였다.

농자재 비용도 뛰었다. 배 포장용 농업용 박스(15kg)의 경우 지난해 6월(1550원)에 비해 100원 오른 1650원에 판매되고 있고 시설하우스용 파이프 가격도 지난해 6월(940원)에 비해 23.5%(221원) 오른 1161원에 거

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운기·트랙터 비용도 지난해에 비해 20만~100만원 가량 올랐다.

일손 구하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서귀수(42·해남군 해남읍)씨는 "당장 고추와 알타리 무 수확에 필요한 인력이 200명 이상인데, 지난해보다 1만원 이상 오른 5만2000~5만3000원을 지급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경우 희망근로 참여자가 4573명으로, 이들의 절반 정도가 농민·주부(52.1%)여서 일손 구하기는 한층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토양 수분 과다로 인한 피해 작목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고참 교원 수석교사·관리직 이원화

교과부, 인턴교사 대폭 채용 '잡무' 줄이기로

교원은 일정 경력이 쌓여 능력을 인정받으면 수업에 전념하는 수석교사와 교감·교장 등 관리직으로 갈리고, 교원들의 행정업무 등도 대폭 줄여준다.

180개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조직과 기능이 개편돼 초중고교를 규제·감독하는 기관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바뀐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남부교육청에서 주재한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교원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과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 방안이 따르면 교원이 1급 급교사를 탄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석교사 또는 관리직(교감·교장)을 선택하도록 해 수업능력이 우수한 교사는 관리직 만큼 우대하기로 했다. 이

를 위해 현재 333명을 상대로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법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해 내년에 2천명으로 늘리고서 매년 1천명씩 확충해 학교당 1명꼴인 1만명을 확보할 방침이다.

교원들은 수업에 몰두할 수 있게 각종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과인), 학교정보공시 등의 기본 자료를 입력하는 이외의 통계 공문을 처리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를 교육청 소속으로 돌려 여러 학교를 맡게 하는 순회교사를 7천명 수준에서 내년 1만5천명으로 늘리고 수업 및 교무행정 보조 역할을 하는 인턴교사를 3천명 더 채용해 1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 먼저 소환

'스폰서 검사' 파문 진상조사단, 립살롱 현장조사

검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향음·정모(52)씨가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식당과 립살롱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서울고검에서는 정씨의 의혹 문건에 나온 검사들의 대면조사를 위주로 각각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단은 리스트에 오른 57명의 전·현직 검사 가운데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검사장급의 고위 간부부터 시작해 현직 검사들을 먼저 소환한 뒤 변호사로 활동중인 전직 검사들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고검 사무실에서는 건설업자

검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향음·정모(52)씨가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식당과 립살롱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서울고검에서는 정씨의 의혹 문건에 나온 검사들의 대면조사를 위주로 각각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단은 리스트에 오른 57명의 전·현직 검사 가운데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검사장급의 고위 간부부터 시작해 현직 검사들을 먼저 소환한 뒤 변호사로 활동중인 전직 검사들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6분 해질 19시 14분 달돋이 18시 04분 달질 04시 27분

전국 구름 낀 하늘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한때 흐리고 비가 온 뒤 오후부터 점차 개겠다.

광주	구름많고한때비	10/14℃
목포	구름많고한때비	10/14℃
여수	구름많고한때비	11/16℃
완도	구름많고한때비	10/14℃
구례	구름많고한때비	10/16℃
해남	구름많고한때비	10/15℃
장흥	구름많고한때비	10/15℃
고흥	구름많고한때비	9/17℃
순천	구름많고한때비	10/17℃
영광	흐림	9/13℃
진도	구름많고한때비	10/14℃
전주	흐리고한때비	9/15℃
남원	구름많고한때비	9/16℃
옥산도	구름많음	9/13℃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목포 00:58 06:18 여수 08:03 01:54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수)	29(목)	30(금)	1(토)	2(일)	3(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5/13	6/19	6/21	8/22	9/23	11/21

'4대강 사업' 수달 등 12종 멸종위기

환경운동연합 발표
환경운동연합은 26일 4대강 사업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 12종을 선정,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에 따라 보 신설과 준설로 서식지에 큰 교란이 생기면서 어류에 서식하는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 민물고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뚝담자루, 미호종개 등 한국 고유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동강에서 보 건설과 수변 개발로 내륙 습지가 훼손돼 전 세계에 6천여 마리만 남은 재두루미 등 철새와 '귀이빨대칭이' 등 희귀 민물조개가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밖에 수달, 흰목물떼새 등도 멸종위기종으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별장 뇌물' 민중기 당진군수 위조여권 해외도피 적발 잠적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와 별장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민중기 충남 당진군수가 위조 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려다 적발돼 잠적했다.

2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민 군수는 지난 2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다오(靑島)로 출국하려다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잠적했다. 민 군수는 이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여권을 검사하는 일반 출입국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위조 여권으로 무단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위해 미리 여권 관련 정보를 등록하려 사무실을 찾았다. 민 군수는 당시 측근 인사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의 여권에 자기 사진을 붙여 제시했고, 여권 위조 흔적을

발견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여직원이 등록 절차를 거부하고 '여권이 좀 이상하다'고 말하자 여권을 그대로 놓고 달아났다. 민 군수는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26일 오후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서산지청은 민 군수의 도피 사건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비리사건과 병합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민 군수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통과하기 위해 미리 여권 관련 정보를 등록하려 사무실을 찾았다. 민 군수는 당시 측근 인사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의 여권에 자기 사진을 붙여 제시했고, 여권 위조 흔적을

/연합뉴스

'스폰서 검사' 의혹 제기 광주~연무대~논산 운행

건설업자 정씨 재구속
검사 향음·정모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재구속을 결정했다. 부산지법은 26일 검찰의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했다. /연합뉴스

금호고속 5월1일부터
금호고속(사장 김성산)이 다음달 1일부터 광주~연무대~논산 간 고속 버스를 신규 운행한다. 광주~연무대~논산 노선은 하루 4차례 왕복 운행되며, 소요 시간은 광주~연무대 1시간25분, 광주~논산 1시간40분이다. 요금은 우등고속은 1만1900원, 일반고속은 8200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